

휴가철 남도 섬 여행객 급증

목포~홍도·흑산도 여객 5만2천명...52% 증가

광복절 연휴 등 한몫...여수엑스포-돌산 110% ↑

올여름 휴가철에 목포, 여수, 고흥 등 서남해안지역 섬을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에 대한 안전대책이 크게 강화돼 불안감이 많이 사라진 데다, 휴가기간 해상의 날씨까지 좋아 섬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도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 지정 등 긴 연휴도 섬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 휴가 특별수송기간인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서남해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항로별로는 목포~홍도, 흑산도 항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5만2000명, 송공~암태 항로는 36% 증가한 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또 완도~청산도 항로는 36% 증가한 6만1000명, 땅끝~산양 항로는 41% 증가한 6만4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전남 동부지역 섬 관광객도 급증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하계휴가철 특별수송 기간에 총 21만5543명이 지역내 여객선을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 14만8635명보다 45% 증가한 것이다. 여수해양청 역시 올해 해상의 날씨가 좋았고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 지정 등 긴 연휴도 방문객 증가에 한 몫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장과 해상케

이블가 이용객 증가로 엑스포~돌산 항로가 전년대보다 110% 증가했으며, 여수~금오도, 여수~거문도, 백야~하화도, 녹동~제주 항로도 여행객이 몰려 전년대보다 20~70% 늘었다.

목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특별수송 기간에 지원반을 운영해 여객 급증이 예상되는 항로에 배를 추가 투입하는 등 섬을 찾는 여객선 이용객의 수송을 지원했다.

목포·여수지방해양청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해사안전감독관이 현장에서 운항관리자와 선원 등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3곳 선정

도, 24일부터 현장평가...내달 2016년 대상지 2곳 결정

전남도가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2016년 공모 결과 8개 시·군 13개 섬이 선정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한 달간의 공모에 여수시 대항간도, 손죽도 등 3곳을 비롯해 고흥군 2곳, 신안군 3곳,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무안군, 완도군 각 1곳 등 13개 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개 섬이 오는 9월말까지 2016년 사

업 대상지로 결정된다.

2015년 사업대상지 공모에는 11개 시·군 21개 섬이 신청해 강진 가우도 등 6곳이 선정된 바 있다.

전남도는 19일부터 심사를 시작해 주민 대표의 제안서 발표 10%, 서류평가 30%, 현장평가 60%를 반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대표의 사업 제안서 발표에서는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이, 서류평가는 사업의 적합성, 창의

성, 실현 가능성 등이 각각 중시될 전망이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현장평가는 2개 반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직접 섬을 방문해 자연풍광, 식생, 역사·문화, 주민 참여 의지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5년 6곳을 비롯해 내년부터 매년 2개 섬을 추가해 2024년까지 24개 섬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시킨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한편 2015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인 6개 섬의 관광객이 선정 이후 대거 급증하는 등 가고 싶은 섬 지정에 따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문화전당 개관 기념 전시·공연 풍성

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문화정보원·창조원 부분 개방

9월 3일 개관 전야제 ‘무도회’...문화정보원 인문학 강연

광주시민들이 오는 9월4일 개관하는 문화전당의 4개원(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문화정보원·창조원)의 일부 공간에서 개관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된다. 개관 전야제는 9월3일 ‘시민과 함께 하는 무도회’를 주제로 열리며, 문화정보원은 개관기념 인문학 강연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전당 개관과 오는 12월 공식 개관식 등 일정·프로그램을 19일 공개했다. 끝자는 전당 시설을 부분 개방한 뒤 콘텐츠(공연·전시, 운영 프로그램 등)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어 오는 12월 공식 개관식 때 민주평화 교류원을 제외하고 시설과 모든 콘텐츠를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민주평화 교류원은 오는 11월께 조성공사가 마무리된다.

문화전당 측은 9월 개관과 더불어 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문화정보원·창조원(4관)의 부분 또는 전체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게되며, 아시아문화광장과 옥외공간의 경우 야간출입이 제한된다.

문화정보원(라이브러리 파크)과 문화창조원 복합4관은 온라인 예약 및 현장 선착순 모집 등 절차를 거쳐 매일 3회 개방한다. 시민편의 시설인 문화상품 판매점은 9월초, 식당과 카페는 10월 중순 오픈할 예정이다.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오는 29일에는 문화전당에서 제6회 광주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2015어린이 공예문화예술축제도 9월3일부터 12일까지 펼쳐진다. 예술극장은 9월4일부터 21일까지 모두 33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개관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문화정보원의 개관 기념 인문학 강연프로그램(9월~11월까지)에는 건축가 송효상, 작가 이불씨 등이 강사로 나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문화전당, 외국인 전문가 뽑는다

연말까지 단계적 인력 채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의 신규 인력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도 선발할 계획이다.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전당이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채용전형으로 필요인력을 모두 선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선 조직을 꾸린 뒤 운영과정에서 필요인력을 추가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전당이 아시아 교류를 지향하는 만큼 외국 전문인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를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문화원 채용방식은 외부기관에

전형을 위탁하는 현행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당을 위탁 운영할 아시아 문화원 조직 구성에 대해선 “기재부에서 예산의 전당 수준으로 운영해 보고 연락처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어떠한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인력규모에 대해서 막바지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방 직무대리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일단 많이 전당을 찾아 주셔야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비로소 세계적인 문화시설이 될 수 있다”며 “지역 문화기관 대표들과 만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당에 대해선 “대한민국 문화 교류의 장이자 국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것”이라며 “내년 8~9월쯤이면 콘텐츠가 대부분 채워져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경찰청

교통과태료 1천만건 넘어

작년 1067만건...10.6% 늘어
광주 19.4%·전남 13.0% ↑

지난해 처음으로 교통과태료 부과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067만건으로 전년보다 10.6%(102만건)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0년 901만건에서 2011년 935만건, 2012년 967만건, 2013년 965만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건을 돌파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4년 사이 18.4% 증가했다.

지방경찰청별로 제주가 2010~2014년 부과건수가 77.8%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천(50.0%), 강원(45.8%) 등도 교통과태료 부과가 많이 늘었다. 광주는 19.4%, 전남은 13.0% 증가했다.

지난해 교통과태료 부과금액은 5464억원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대서 대기업 채용 설명회

내달 3일 삼성·SK·LG·롯데·포스코 등 참여

삼성·SK·LG·롯데·포스코 등 주요 11개 그룹이 9월 3일 전남대에서 대졸 신입사원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삼성·SK·LG 등 주요 11개 그룹이 참여하는 ‘2015 지역인재 채용설명회’를 오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오전 11시30분 전남대·경북대·충남대·부산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대에서는 다음달 3일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참여기업은 삼성과 SK, LG,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화, KT, 대림 등 9곳이다.

채용설명회에는 이들 그룹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그룹의 비전과 비전에 부합하는 인재상, 주요 채용프로세스, 그룹별 자기 소개서 작성 주의 사항, 필기시험의 주요 특이점, 영어 등 제2외국어 우대사항, 면접 주의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설명회와 별도로 그룹별 상담부스를 마련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또 이재호 속명여대 취업멘토 교수가 ‘면접에서 성공하는 나만의 콘텐츠 구축법과 기업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취업준비 전략법’을 강연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운암동 광안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訃 告

光州保健大學校 總長 金亮奕 長老님께서
2015年 8月 18日 別世 하셨습니다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빈 소 : 스카이장례식장 201분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 발 인 : 2015년 8월 20일(목) 08:00
- 장 지 : 광주제일교회 제일동산 (전남 화순군 동면 마산리 산10-3)

光州保健大學校
總長葬禮委員會委員長